

다중언어 사회의 언어문화현상을 통해 본 21세기 언어문화교육의 방향*

- 싱가포르의 사례를 바탕으로 -

김창원**

〈차 례〉

- I. 머리말
- II. 싱가포르의 언어문화와 언어문화교육
 - 1. 싱가포르의 언어문화적 배경
 - 2. 싱가포르 언어문화현상의 이면
 - 3. 싱가포르의 언어문화교육 - ‘小學華文’을 중심으로
- III. 21세기 언어문화교육의 쟁점과 방향
 - 1. 싱가포르의 언어문화현상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시사
 - 2. 언어문화교육의 방향 설정과 관련된 쟁점
 - 3. 미래 지향적 언어문화교육의 방향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논문은 싱가포르의 언어문화현상을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 언어문화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언어문화’의 개념과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1-A00298)

** 경인교육대학교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언어활동의 기반이자, 그 수준오름(shift-up)을 이끄는 일체의 삶과 행동 양식의 체제'라고 규정하고 시작한다. 거기에는 한국어와 관련한 표현문화, 소통문화, 전통문화, 예술문화가 모두 포함된다.

언어문화와 그 교육이 왜 중요한가? 이 물음에는 실용적인 답과 생태학적인 답을 모두 댈 수 있다. WTO 체제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세계화, 자유경쟁체제 등의 외적 조건과 관련하여 언어문화와 국가경쟁력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그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이 첫째에 해당한다. 그와 달리 국가 또는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과 언어다양성의 관점에서 언어문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법은 둘째라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언어문화는 그 언어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정체성은 그대로 그 공동체의 정치·경제적 생존력을 담보하며, 언어문화교육의 개선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논지는 공통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국어교육은 좁은 의미의 의사소통(Technical Language) 교육에 그칠 수 없고, 한 단계 높은 언어문화(Cultural Language) 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연구를 위하여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필자가 싱가포르에 체류할 기회가 있어서이지만, 2) 한편으로는 싱가포르가 지닌 독특한 언어문화적 배경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보다 조금 큰 면적(640km²)에 인구도 420만 명밖에 안 되는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경제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교육에서 찾는 경우가 많거니와,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주민들의 영어능력이다. 다인종·다언어 사회인 싱가포르가 영어를 매개로 하여 국가를 통합하고 경쟁력을 높여 가는 양상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 언어문화교육이 얻는 바가 많을 것이

2) 필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경인교육대학교의 지원으로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 까지 싱가포르 국립교육학원(NI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의 교육문제연구소(CRPP: Center for Research in Pedagogy and Practice)에서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했다. NIE는 싱가포르의 교사 양성을 전담하며, CRPP는 싱가포르의 교육 개혁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다.

다. 또, 우리나라의 언어문화교육에 대해 고민하면서 싱가포르라는 척도를 끌어옴으로써 자국어 중심주의와 근시안적 기능주의를 극복할 객관적 시각도 확보할 수 있다.

II. 싱가포르의 언어문화와 언어문화교육

1. 싱가포르의 언어문화적 배경

말레이반도의 끝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ASEAN의 창설 멤버이자 동남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1965년 독립한 이래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화된 국가로 발전해 왔다. 리관유(李光耀) 총리의 집권 기간 중 자유무역항으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도 관세 장벽이 거의 없어 주요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전진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20,690 USD로서, 일본을 제외하면 홍콩과 함께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한국은 11,400 USD).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물론 인적 자원으로, 싱가포르의 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이라 할 만하다. 그 정점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과 난양기술대(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싱가포르 경영대(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가 있다.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의 Thomas Stamford Raffles경이 Johor 주의 술탄에게서 싱가포르섬을 매입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영국은 그 후 2차대전까지 100년 넘게 싱가포르를 지배했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중국인과 인도인으로 충당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싱가포르는 중국인(76.5%), 말레이인(13.8%), 인도·파키스탄인(8.1%), 기타 유럽·아시아인이 각기 다른 언어와 풍속을 유지한 채 공존하는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종교도 불교·도교(51%), 이슬람교(14.9%), 기독교(14.6%), 힌두교(4.0%) 등으로 다양하며, 영어·중국어·말레이

어·타밀어의 네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의 정강에 따라, 영어를 기본 공용어(*lingua franca*)³⁾로 사용하되 민족마다 고유한 모어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에 따라 교육과 행정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지만, 가정이나 소규모 집단에서는 각자의 민족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모어와 영어의 이중언어교육에 힘을 쏟으며, 제도 교육의 대부분을 언어교육에 할애한다. 싱가포르에서 영어가 모어인 사람은 소수이지만, 4) 네 개의 공용어 중 영어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싱가포르가 영어를 기본 공용어로 채택한 이유는 여러 인종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지만, 한편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를 오래 받은 데서 온 영향도 크다. 자연히 싱가포르 영어는 영국식 영어를 따르되, 외국어를 공용어로 쓰는 과정에서 자국의 문화와 사고 체계를 반영하여 자기들만의 독특한 영어를 만들어 냈다. 'Singlish'라고 부르는 이 피진 영어는 영어의 문법을 단순화하고 억양과 악센트에 중국어의 영향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표현 또한 매우 간단하며, 싱가포르의 고유한 표현과 어법이 있다.⁵⁾ 물론, Singlish를 사용하더라도 표준영어와 기초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싱가포르가 다인종 사회이기는 하나, 전체 인구의 3/4을 차지하는 중국인이 정치·경제적인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식의 사고와 문

3) 이 용어는 '혼성언어', '혼성국제어' 등으로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언어적 배경이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교육, 행정, 경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 실용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쓰는 언어라는 뜻에서 '기본 공용어'로 번역하였다.

4) 세대가 지나면서 이 경향도 바뀌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계의 20% 정도는 가정언어(Household Language, 대체로 이것이 모어가 된다.)로 영어를 사용하고, 30% 정도는 만다린을 사용한다. 단지 50% 정도만이 원래의 모어인 각 지방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5) Singlish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외국의 '원어민 교사'도 한 역할을 했다. 영국·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에서 들어온 수많은 원어민 교사가 싱가포르에 각기 다른 악센트와 어법을 들여온 것이다. 이들이 싱가포르의 언어 환경과 일정 부분 타협하면서 Singlish의 진폭에도 영향을 미쳤다.

화가 널리 퍼져 있다. 1963년 말레이연방의 한 주로 가입했다가 2년 뒤에 탈퇴한 이유도 말레이-이슬람권인 말레이연방과의 인종적·문화적 갈등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거대한 말레이-이슬람 지역에 떠 있는 중국계의 섬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언어문화는 고유한 문화적 전통 없이 장기간 영국의 지배를 받은 역사적 맥락, 중국계·말레이계·인도계 주민이 섞여 사는 복잡한 인종 구성, 말레이-이슬람 지역에 자리잡은 소규모 이민국가라는 지리적 배경, 그리고 유교적 실용주의의 기반 위에 국제화를 추구하는 인민행동당의 정강·정책 등이 어울려 비교적 짧은 기간에 형성된 것이다. 또한, 나라가 워낙 작고 사회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문화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2. 싱가포르 언어문화현상의 이면

싱가포르의 언어문화는 건국 이래의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리적 배경(말레이반도)과 인종적 배경(다수의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다인종 사회)이 상충하는 가운데 어떠한 언어를 공용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생국 싱가포르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인민행동당은 이와 관련하여 절충적이면서도 과격한 정책을 택하는데, “각 인종의 모어를 인정하되 기본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한다.”는 정책이 그것이다. 이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이중언어 사용자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이면이 담고 있는 언어철학 및 언어사회학적 의미에 대한 분석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싱가포르의 언어문화는 영어와 관련된 부분과 각 인종의 모어와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말은 ‘싱가포르 언어’라는 하나의 총체상을 그려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언어문화는 다

양한 언어적 계토를 만들어 냈다. 크게 봐서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사회가 존재하고, 이는 다시 출신 지역에 따라 복건어(福建語, Hokkien)·조주어(潮州語, Teochew)·광둥어(廣東語, Cantonese)·해남어(海南語, Hainanese)·객가어(客家語, Hakka), 말레이어(Malay)·자바어(Javanese)·보야어(Boyanese), 타밀어(Tamil)·텔루구어(Telugu)·펀잡어(Punjabi)·힌디어(Hindi)·벵갈어(Bengali) 등의 하위 집단으로 세분된다. 6) 모어(기본적으로 인종, 그 다음에 출신 지역)에 따라 집단이 나뉘는 현상은 특히 사적 공간에서 두드러지며, 그러한 모어 네트워크는 거의 전 생애에 걸쳐서 지속된다.

이러한 소통문화는 자연스럽게 사적 언어와 공적 언어의 분리를 낳고, 나아가 언어의 권력화와 위계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 위계의 최상층에는 표준영어(Queen's English)와 북경 표준어(普通話, Mandarin)가 있다. 7) 또한, 장(場)에 따른 언어의 분리는 부수적으로 제1공용어에 대한 민족어의 위축, 언어 표현의 단순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어긋남, 8)

- 6) 이 중 공용어로 인정받은 것은 말레이어와 타밀어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복건어와 조주어, 광둥어가 가장 널리 쓰이지만, 공용어로는 만다린을 선택했다.
7) 싱가포르의 언어 권력은 몇 가지의 대립향이 겹치면서 중층화 된다. 대표적인 대립향은 다음과 같다.

상위의/중심부의/강한	하위의/주변부의/약한
영어	각 민족어(중국어, 말레이계, 인도계)
표준영어	싱가포르 영어
중국어	말레이계, 인도계 언어
만다린	중국 남부 방언

이러한 대립 구도는 언어정책 수립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쉽게 '교육받은/고급의/주류의' 언어와 '교육받지 못한/하급의/비주류의'의 대립 구도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구사하는 언어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표준영어와 만다린 배우기에 열을 올린다.

- 8) 이 문제는 비중국계 주민들이 중국어를 익힐 때 많이 드러난다. 중국어를 능숙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도 한자(間體字)를 바르게 읽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비인도계 주민이 타밀 문자를 쓸 때도 마찬가지다.(말레이어의 경우에는 로마자를 쓰기 때 문에 이런 현상이 없다.)

문학의 공동화 등의 문제를 낳았다.

싱가포르 언어문화를 살펴볼 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표현의 깊이/다양성 문제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민족어는 점점 그 지위가 약해지는데다, 소규모 집단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서 몇 대를 살다 보니 어휘량이나 표현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여러 민족어는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만, 민족어를 가르칠 교사도 없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 민족어 대신 새로 획득한 영어 또한 이유는 다르지만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곧, 교육과 행정, 통상 등의 제한된 분야에서 실용적인 의사소통만을 위해 영어를 쓰다 보니, 역시 표현의 다양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Singlish가 단순한 문법,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시종하는 것이 그 예이거니와, 영어든 민족어든 싱가포르에서 표현문화를 얘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인구가 문학 시장을 형성하기에 워낙 적은데다 교육이나 미디어 등에서 문학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독자적인 문학권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기준에 따라 동남아시아 문학, 중문학, 혹은 영문학 등의 일부가 될 뿐이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확고한 정체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며,⁹⁾ 독자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영미권의 작품을 주로 접할 뿐이다. 이 민자들이 모여서 만든 다인종 국가로서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담은 문학이 가능하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할 듯하다.

싱가포르 언어문화정책의 딜레마는 결국 인종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지역화(Loc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각 인종의 고유 언어와 문화를 중시하는 관점과 다인종 도시국가로서의 생존력을 중시하는 관점이 서로 충돌하면서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¹⁰⁾ 공식적인 정책은 싱가포르 국가

9) 싱가포르 문학은 중문학이나 영문학에서는 어차피 변방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한계를 '동남아시아 문학'을 통해 넘어서려고 하지만, 가장 가까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조차도 말레이·이슬람 국가로서 싱가포르와는 다른 문화적 맥락을 갖고 있다.

10) 이와 관련한 논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싱가포르 영어(Singlish)의 가치에 대한

정체성의 강화와 그를 바탕으로 한 국제화를 표방하지만, 그 이면에는 민족어 및 전통 문화의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3. 싱가포르의 언어문화교육 - ‘小學華文’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언어문화교육 정책은 다인종주의Multiracialism·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축 위에서 수립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기본 공용어로서의 영어가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교육을 받는데,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대화 능력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어휘와 문법, 발음을 중시하고, 모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역시 어휘와 유창성을 중시하면서 각 인종의 문화적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인 방향은 의사소통에서의 유창성을 목표로 삼고, 그 바탕이 되는 리터러시를 중시하며, 교육 성취도와 연계하여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문화교육 정책은 <최상위 심급으로서의 국가 정체성 유지→그 기반으로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 추구→국민통합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교육→영어 중심의 이중언어교육>의 논리를 따라 구체화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큰 목표로 제시했던 다언어·다문화 교육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개방 이후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키우면서 중국어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는 반면, 11) 말레

논쟁이다. “broken English인 Singlish를 순화하여 고급 영어를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Singlish는 싱가포르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싱가포르만의 고유한 언어(Local English)다.”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자의 주장은 ‘Good English <http://www.goodenglish.com>’를 통해 알 수 있고, 후자의 입장은 Strait Times를 비롯한 대중적인 저널에 주기적으로 제기된다.

- 11) 최근 활발하게 벌어지는 ‘Let’s Speak Mandarin’, ‘華語 Cool’ 등의 캠페인이 이 경향을 대변한다. 80세가 넘는 리관유 전 수상의 만다린 학습 경험이 책으로 출간되어 정책적으로 보급되기도 했고, 2004년 리센룽(李顯龍) 현 총리가 취임할 때에도 취임 연설을 하면서 일단 영어로 시작한 뒤 곧바로 만다린으로 바뀌서 연설을 진행했다. 이는 만다린 확산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http://www.mandarin.org.sg> 참조.

이어와 타밀어는 계속 위축되고 있다. 영어를 중심으로 한 다중언어 사회에서 영어와 중국어가 중심이 되고 다른 언어들은 소수 언어로 떨어지는 언어 재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에 관한 한 싱가포르에서 다인종주의는 유지되지만 다언어·다문화주의는 약해지고 있다.

싱가포르 언어문화교육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어[華文] 교육 과정을 예로 들기로 하자.(다른 언어의 교육과정도 언어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小學의 중국어 교육과정[小學華文課程標準]에서 제시한 어문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어문교육의 목표〉

- ◆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어문 기능 교수·학습을 통해 학생의 어문 능력을 기르는 것
- ◆ 어문교육을 통하여 중국(華族)의 문화와 전통, 가치관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언어교육의 목표로 언어기능 신장과 문화·가치 함양을 병치한 것으로, 우리와 비슷하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 '교학 목표'인데, 교학 목표는 다시 교과 목표(總目標)와 영역별 목표(分項目標)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중국어 과목의 교학 목표는 다음과 같다.

소학 중국어교육의 목표는 두 가지다. 도구적(工具性) 목표와 사상·문화적 목표가 그것이다. 도구적 목표는 의사소통(交際), 인지(認知), 사유(思維)의 세 영역을 포괄하고, 사상·문화적 목표는 전통 문화와 가치관 함양을 포괄한다.

앞에서 본 대로 언어교육의 목표를 두 가지로 나뉘서 설명하였으며, 도구적 목표를 '의사소통, 인지, 사유'의 셋으로 범주화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를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학교 학습의 기본 기능과 국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념을 강조하였으며, 학생의 인종적·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중국어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 중 사상·문화

적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상·문화적 목표〉

제재 및 더 읽을거리와 연관된 문화 활동을 함으로써,

- 전통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뿌리를 중시한다.
-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관을 이해하고, 국가에 대한 애정을 갖는다.

여기서의 핵심어는 ‘전통 문화’, ‘자신의 뿌리’, ‘가치관’, ‘국가에 대한 애정’이다. 곧, ‘중국어’로서의 인종적 정체성과 ‘싱가포르인’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싱가포르가 지닌 딜레마를 교육 과정에 그대로 투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를 위하여 전통 문화와 가치관 관련 목표를 각각 6항목(윤리·풍속·인물·문학·역사·기술과학)과 5범주(개인·가정·사회·국가·세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교재 역시 도구성과 사상·문화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관련 단원과 문화 관련 단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그 중 문화 관련 단원은 주로 중국의 고전 텍스트 경험을 넓히는 데 치중한다.

싱가포르 언어문화교육의 또 다른 특징으로 수준별 교육을 들 수 있다. 중국어를 예로 들면, 앞에서 본 큰 목표 아래 각 학년별로 영역 목표를 제시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의 연령상 특징, 생활 경험, 어문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화하였다.

〈단계〉

- ◆ 奠基 단계(1~4학년) : 공통의 중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상위 학생의 경우 고급 중국어를 이수할 수 있다.(고급 중국어라 할지라도 학습 내용은 같다.)
- ◆ 定向 단계(5~6학년) : 학습 수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내용을 다룬다.
 - EM1 : ‘高級華文’ -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
 - EM2 : ‘華文’ - 제2언어로 중국어를 익힌 학생
 - EM3 : ‘基礎華文’ - 중국어 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생

이처럼 일찍부터 수준별로 나누어 지도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완전한 중국어 사회가 아닌 언어 환경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별을 통한 엘리트 교육을 지향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교육과정과 교재, 수업, 평가 모두 수준을 나누어 지도할 경우¹²⁾ 도구적 목표와 관련해서는 효율성이 높아지겠지만, 사상·문화적 목표와 관련해서도 그러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사상·문화적 목표는 정의적 요소가 강하고 경험의 중요한데 수준별 교육으로 요구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과정상의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 싱가포르 언어문화교육의 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Ⅲ. 21세기 언어문화교육의 쟁점과 방향

1. 싱가포르의 언어문화현상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시사

싱가포르는 원주민의 문화 전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러 인종이 모여 국가를 만들었고, 오늘날과 같은 언어 환경을 갖춘 지도 40년밖에 되지 않아 다중언어 사회의 언어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좋은 사례가 된다. 또, 인접한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와 사회·문화적으로 대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언어문화적 섬’으로서 언어문화현상의 이면을 살펴보기에도 좋다. 국가 규모가 작아서 언어 정책을 펴기에도, 그 의미와 효과를 평가하기에도 쉽다는 것이 연구 사례로서 또 하나의 강점으로 다가온다. 변화하는 시대의 언어문화교육은 어떠한지 하는지를 결정할 때 싱가포르의 사례는 의미있는 비교 준거가 될 수

12) 定向 단계에 이르면 세 그룹에 각기 다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적용한다. 수업은 EM1과 EM2는 한 교실에서 수준별 수업을 하고, EM3은 별도 교실에서 이동수업을 한다. 小學을 졸업할 때 졸업시험(PSLE: 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을 치르는데, 이때도 세 그룹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있다.

필자는 싱가포르의 언어문화현상에서 두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과 두 가지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아주 일반적인 명제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인 시사는 국민통합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관한 것이고 부정적인 시사는 언어문화 및 언어생태학에 관한 것이다. 그를 통해서 언어문화 및 언어교육의 총체성에 관해서 재인식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언어 정책은 20세기 후반에 독립한 신생국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된다. 싱가포르는 이미 70 ~ 80년대부터 한국·대만·홍콩과 함께 '네 마리의 작은 용'으로 불렸거니와, 언어적·인종적으로 비교적 순일한 한국이나 거의 전적으로 중국인 사회인 대만·홍콩과 달리 다인종·다언어 국가로서 그만한 성공을 일구어냈다는 점에서 특출한 바가 있다. 이질적인 사고와 문화적 배경, 언어를 지닌 인종들을 하나로 묶는 데에 영어를 매개로 한 인종 통합 정책이 큰 몫을 한 것이다.¹³⁾ 특히 구성원들의 모어가 아닌 제3의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성공했다는 점에서 언어가 적극적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 사례로 들기에 적절하다.

이러한 성공은 그대로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싱가포르가 영어를 공용어로 삼은 '덕분에' 동남아시아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비슷한 상황인 파키스탄이나 필리핀 등의 사례를 보면 영어가 충분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중국인 특유의 실용주의와 영어를 매개로 한 국민통합, 그리고 인민행동당의 리더십이 결합하여 오늘의 싱가포르를 일구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곧, 영어공용화를 '통해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만일 싱가포르가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를 제1공용어로 선택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발전

13) 영어와 함께 싱가포르의 인종 통합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가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이다. HDB는 인종과 언어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저렴하게 보급하여, 각 인종이 거주 지역별로 분리되는 것을 막았다. 싱가포르의 차이나타운이나 인디언스트리트, 말레이빌리지 등은 관광 목적일 뿐 생활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Sunanda K. Datta-Ray, Integration, S'pore-style, Strait Times, 2005.9.15, 22면.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영어가 안 통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어로는 비중국계 주민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싱가포르의 언어문화현상은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 달리 부정적인 면도 내보이고 있다. 이것 역시 모어가 아닌 제3의 언어를 제1공용어로 쓰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언어의 기능을 전적으로 정보적, 혹은 좁은 의미의 의사소통적 기능으로 한정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곧, 언어의 기능(機能)이 기능적(技能的)인 것으로만 축소되는 것이다. 그 결과 영어와 민족어 모두 문법과 표현이 단순화 되고, 어휘가 줄어들며, 고급의 언어문화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일상생활과 교육·행정 등의 공식적인 언어활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한 차원 높은 언어문화 면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문학'의 존재 여부 혹은 가치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 대답은 유보적일 수밖에 없고,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영어로 초점을 좁힐 경우에도 싱가포르의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이른바 'Singlish'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영어는 역사적으로 영국 영어에 가깝지만, 1970년대 이후 월남전이 확대되고 환태평양 경제블럭이 강화되면서 점차 미국 영어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아울러 중국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민족어의 간섭을 받아 그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단순히 발음이나 억양의 문제가 아니라 발상과 표현에서 영·미권의 표준 영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영어교육은 끊임없이 표준영어와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영어 때문에 중국어 등 다른 민족어의 문화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갖게 되었다.

이에 더해서, 영어와 중국어(만다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언어 다양성이 감소하는 경향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원래 여러 지역의 이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넓게 봐서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이지 그 안에는 수많은 민족어가 공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계 언어는 점차 그들의 모어가 아닌 만다린으로 통일돼 가고, 말레이계와 인도계 민족어도 위축되고 있다. 대신 영어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다. 14) 영어가 교육과 직업적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처럼 비치면서 영어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지만, 그럴수록 Singlish는 표준 영어로부터 멀어진다는 데에 싱가포르의 고민이 있다.

싱가포르의 언어문화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언어문화교육에 대하여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명제를 재확인하게 해 준다. 곧, 언어교육에서 사고와 의사소통, 문화형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고, 국제어로서 영어교육을 강화하되 목표와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하며, 모어문화 및 모어교육의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강소국'으로서 고도성장 가도를 질주하는 동안 정치·사회적 자유를 일정 부분 유보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공용화를 통한 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의 풍요로움과 농밀함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문화콘텐츠가 '퓨전' 외에 특출한 것이 없다든지 의학·기술 분야에 비해 문

- 14)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가정의 가정언어(Household Language)를 조사한 다음 표를 보면, 10년 동안 영어는 거의 두 배, 만다린은 2.5배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중국 (남부) 방언이고, 말레이어와 타밀어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Gopinathan, S., Anne Pakir, Ho Wah Kam & Vanithamani Saravanan, 1998:22)

언어	조사 연도/비율(%)	
	1980	1990
영어	11.6	20.3
만다린	10.2	26.0
중국 방언	59.5	36.7
말레이어	13.9	13.4
타밀어	3.1	2.9
기타	1.7	0.7

보다 최근의 조사도 말레이계·타밀계 주민의 가정언어가 그들의 모어에서 점차 영어로 바뀌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Arlina Arshad, More Malays now speak English at home, Strait Times, 2005.12.18, H12면)

인종	가정언어	1996년	2005년
말레이계	말레이어	82%	71%
	영어	17%	28%
타밀계	타밀어	46%	41%
	영어	53%	55%

학·사상 분야가 취약한 이유를 전적으로 언어 문제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이 그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이 각 인종의 민족 정체성을 압도하고¹⁵⁾ 실용적·기능적 언어관이 교육을 지배하는 동안, 싱가포르 언어문화의 생태학적 에너지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2. 언어문화교육의 방향 설정과 관련된 쟁점

싱가포르의 사례를 우리 상황과 대비하면 언어문화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중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거론하기로 한다. 언어를 통한 사회통합 추구하고 언어생태학의 문제, 이중언어교육 혹은 영어공용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문제, 그리고 국가 주도의 언어문화교육 정책 문제가 그것이다. 모두 거시적 '언어발전계획'(Language Planning)¹⁶⁾과 관련된 것들로, 구체적인 언어 및 언어문화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기초가 된다.

우선, 언어통합에 관한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와 그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은 우리에게 '단일언어공동체'의 아이덴티티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15)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인도계 주민들은 고향을 떠난 지 4~5대 이상 흐르면서 고향과의 심리적 연계가 거의 끊어졌다. 중국계 주민 역시 자신을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계 싱가포르인'으로 인식한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중국계가 아직 본국과 강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Malaysians better than S'poreans in Chinese, Strait Times, 2005.10.1, 32면

16) 'Language Planning'을 '언어발전계획'으로 번역해 봤다. 원래 좁은 의미에서 Language Planning은 인도·필리핀·싱가포르 등에서 영어를 공용어를 정하고 정착시키는 것처럼, 국가의 공용어에 관한 정책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법률·교육·행정 등의 공적 영역에서 어떤 언어를 쓸지가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Language Planning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 정책'이나 Language Change, Language Management, Language Shift 등과 비슷하면서도 맥락에 따라 약간 다르게 쓰인다. 여기서는 시간·범위 면에서 장기적·거시적으로 작동하는 언어 정책이라는 뜻으로 썼다. 국한혼용/한글전용 문제, 영어공용화 문제, 남북 언어통합 문제, 한국어 세계화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가치, 혹은 문제를 지니는지에 대해 다시 숙고해 볼 것을 요구한다. 남북의 언어통합, 한민족공통어 등을 당위 명제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한국 언어문화의 생태학적 다양성에 대한 시각도 필요하고, 그보다 본질적으로 '통합된 사회'의 문화 역량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잘 조직된 대신 통제가 지나치다고 비판받는 싱가포르 사회의 명암이 언어통합 정책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만약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규범성을 강조하는 중앙집권적인 언어문화정책을 고수한다면, 그 대신 치러야 할 반대급부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예컨대 지역문화·소수문화의 위축, 언어 자체의 도구화와 단순화, 표준 언어를 정점으로 한 언어 권력의 위계화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물론, 싱가포르가 영어라는 기본 공용어를 매개로 여러 인종을 통합하고자 한 정책은 짧은 기간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성공은 국가 규모가 작고,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 약하며, 각 인종의 언어가 완전히 이질적이고, 정치권력이 집중돼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말하자면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허허벌판에 무작위로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하나의 언어를 기본 공용어로 던져줄 때 "언어로써 사회를 통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규모가 크거나(그래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각 민족어 공동체가 큰 경우) 어느 한 인종이 다수를 차지해서 지배적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혹은 구성 언어들이 서로 비슷해서 쉽사리 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싱가포르처럼 제3의 언어를 기본 공용어로 삼기가 쉽지 않다.

이 지점에서 싱가포르의 언어통합 정책은 자연스럽게 영어공용화로 논으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영어공용화론 자체에 대해 논의할 의도는 없지만, 우리 상황을 싱가포르의 사례와 견주어 보면 영어나 한국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표준영어가 Singlish로 바뀌고, 각 인종의 모어가 위축되며, 언어문화도 단순화 되는 현상을 봤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사례로만 미루어 본다면, 영어공용화가 모국어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유창한 영어 화자를 기를 수 있다는 주장은 순진한 희망이거나 의

도를 숨긴 궤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이다. 싱가포르가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선택한 것이 1956년이고, 교육 분야에서 영어를 기본 언어로 정한 때가 1966년이다. 또, 난양기술대에서 영어를 교수 언어로 채택한 시점이 1975년이니, 대략 10년마다 영어의 중요도가 한 단계씩 올라간 셈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적어도 읽기와 쓰기에서만큼은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50년 넘게 지속적으로 영어공용화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싱가포르의 영어로 생활하는 데 거의 불편함이 없는 도시가 되었다. 당연히 영어로 교역하고,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끼리도 영어로 대화하고, 지식의 자체 생산보다 수용과 중계에 의존하며, 외국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영어를 쓰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영어공용화를 추진하려면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상황이 비슷한 나라들의 언어문화현상을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정책적인 선택이란 국가 주도의 언어 및 교육 정책을 전제하는데, 실제 언어문화현상은 그러한 정책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기 일쑤기 때문이다. 싱가포르가 100년 이상 영국의 지배를 받고 건국 이전 자치정부 시절부터 50년 넘게 영어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결국 Singlish밖에 낳지 못한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Singlish도 수많은 지역영어(Local English)의 하나로서 나름대로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것과 싱가포르 영어교육의 성패에 대한 평가는 서로 별개의 문제다. 표준영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싱가포르의 이중언어교육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에도 표준어 확산과 정서법 보급 같은 성공 사례가 있는가 하면 순우리말 쓰거나 자유교양독서 같은 실패 사례도 있고, 국한혼용/한글전용 문제처럼 유보 상황인 경우도 있다. 싱가포르와 우리의 상황을 한데 묶어 판단해 보건대, 국가 주도의 언어문화교육 정책이란 언어활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규범적인 영역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시대의 국자보급이나 우리말 이름짓기처럼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운동도 계몽적·중앙집권적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언어문화교육 정책은 이론이 제공하는 구심력과 실체가 지는 원심력, 언어문화 발달에 관한 정책적 필요성과 현실적 가능성 사이에서 적절한 위치를 잡아야 한다.

3. 미래 지향적 언어문화교육의 방향

미래 지향적 언어문화교육은 바람직한 언어문화의 미래상을 상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서는 싱가포르의 언어문화현상을 비교 준거로 활용하여 우리 언어문화교육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의 상황이 우리와 똑같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의 내부 논리에 함몰되어 놓칠 수 있는 논점들을 드러낼 수는 있을 것이다.

먼저, 싱가포르의 언어문화에서 우리와 가장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이중언어교육 정책이다. 과연 21세기의 한국인은 이중언어를 구사해야 할까? 싱가포르의 예를 보면, 이중언어교육이 성공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매우 크다. 그러나 다인종·다언어 국가와 단일민족·단일언어 국가의 언어 환경이 다르고, 영어를 제1공용어로 만들면서 잃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면적인 이중언어정책 대신 부분적인 이중언어정책(예컨대 학교와 기업, 정부에서 교육 및 통상, 행정 등을 위해서만 영어를 쓴다.)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인 이중언어 사용으로 이중언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이중언어교육이 성공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영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영어의 권력화/영어로부터의 소외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언어선택권(Language Right)의 문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¹⁷⁾ 결국 이

17) 진정한 이중언어 사회라면 각 개인이 원하는 대로 언어를 선택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공적인 문서는 대부분 영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어, 말레이·

중언어교육은 그 필요성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래 지향적 언어문화교육은 한국 언어문화의 고유성과 세계 언어의 생태학적 다양성을 담보하되, 국제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의사소통 교육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한국어공동체의 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한 방안으로 언어문화교육에서의 '장다양성(場多様性)'의 개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가 리관유 전수상과 인민행동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언어 통합을 시도했지만, 그 성공 사례의 뒤에는 많은 잃어버린 가능성이 방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싱가포르보다 언어적 순일성 면에서 유리하므로 싱가포르가 언어통합에 기울인 노력을 언어문화의 다양성 쪽으로 돌릴 수 있다. 어휘와 표현은 물론이고 매체·장르·각종 담론의 장에서 언어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싱가포르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문자 체계(한글)의 개선과 세계화, 국제어로서의 한국어 보급, 통신언어 규약 정비, 예술문화의 발전 등,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넘어서는 언어문화교육의 영역은 매우 많다.

나아가, 국제어로서의 한국어교육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랜 역사적 전통에 식민지 경험이 덧붙어서 '겨레'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하고, 그것이 언어문화교육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물론 국어를 갈고닦으며 국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어가 외국에서도 쓰일 수 있고, 그럴 경우 '표준 한국어'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싱가포르가 약간은 자기비하적인 'Singlish'라는 말을 스스로없이 쓰는 것은 자신들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이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 각지로 퍼져나간 영어가 수많은 피진들을 만들어 내도, 그리하여 심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까지 생겨도, 그것에 대해 영국에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즉, 국어순수주의나 지나친 규범중심주의는 한국어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길이다. 여러 나라에 '현지

타밀어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선택권이 좁을 수밖에 없다.

화 된' 한국어가 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원리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모국어교육의 목표를 세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에서 영어와 모어의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할 때, 영어는 대체로 의사소통 중심의 기초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모어는 사고와 문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외국어교육을 한다면 일단은 도구적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국어교육이라면 도구적 목표와 사상·문화적 목표를 다 달성해야 하고, 외국어교육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사상·문화적 목표의 비중이 커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곧, 국어교육도 기초적·기능적 문식성 신장 영역과 언어문화 함양 영역으로 구분하고, 발달 단계와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양자의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도구적 능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새로 배운다기보다 이미 갖추고 있는 능력을 정교화·풍부화하는 속성이 강하므로, 국어과의 틀 안에 가두지 말고 범교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교사의 국어교사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국어교사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어과가 도구교과라면, 국어교사 역시 '도구교사'가 되어야 하는 게 논리적 귀결이다. 여기서의 '도구교사'란 언어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학문/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말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중등 교사도 모두 두 과목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영어와 사회', '수학과 물리' 같은 식이다. 단순한 부전공이 아니라 두 과목을 똑같이 전공한 것인데, 그럼으로써 좀더 넓은 안목에서 교과를 바라볼 수 있고 교사 운용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꼭 그런 복수전공이 아니라도, 국어교사가 기본적인 언어활동·언어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특정 학문/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갖춘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는 그 전문성이 언어와 문학 분야에만 한정되나, 다른 분야로 확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과의 교사가 국어교사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목표별 분류와 함께, 언어문화교육을 단계별로도 초점화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小學 5학년부터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

는데, 장기적으로 그러한 정책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국민공통기본 교육 기간 10년 동안(실제로는 그 이후까지 12년 동안) 모든 학생이 꼭 같은 교육과정·교재로 수업해야 하는지 돌아볼 때가 된 것이다. 기본문식성을 갖춘 상태에서는 중학교 정도부터 학문언어·직업언어·예술언어 등으로 분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기본 영역과 확장 영역으로 나누어, 기본 영역에서는 공통의 기본문식성과 문화능력을 다루고 확장 영역에서는 목적에 따라 특화된 능력을 다루는 방안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미래 지향적 언어문화교육은 언어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문화에 대한 교조주의나 방임적 관점으로는 언어문화교육의 철학을 구현할 수 없으며, 기술적(技術的) 접근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관과 교과관을 바꾸고, 민족어로서의 한국어와 언어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IV. 맺음말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단일민족·단일언어의 이데올로기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언어 환경과 언어문화교육 정책이 맺는 관계에 대하여 인식할 기회가 없었다. 조선 초기 한글창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 거의 유일한 언어문화교육 정책론일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 식민 당국의 조선어말살 정책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언어문화교육 정책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가속화된 정보화와 국제화는 삼국통일이나 한글창제, 일제의 식민 침탈, 남북분단 등에 못지않게 중요한 언어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 이은 제3의 언어로 매체언어가 등장했으며, 영어공용화론이 등장할 정도로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국어와 외국어의 교섭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어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말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반드시 바람직한 정책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것처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책만으로는 다가올 격변을 한동안 연기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대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어문화를 발전시키고 급변하는 환경에 국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언어문화교육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다민족·다언어·다문화 사회로서 인종주의나 문화 차별 같은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영어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 경험과 경제 개방 정책이 언어문화와 교육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국인이 정치·경제적 실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다중언어 정책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아시아 제일의 국제도시로서 수많은 외국인과 외국인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싱가포르의 언어 환경에 적응하는지, 상대적으로 소수인 말레이·인도계 주민은 모어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도 민감한 문제이다. 싱가포르의 교육과 언어 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어문화교육 정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언어문화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종의 '문화적 원근법'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문화를 문화적 거리(Cultural Distance)를 유지하면서 균형감 있게 수용·반응하는 자세로서, 국제화 시대의 언어교육(모국어와 외국어를 막론하고)에서 매우 중요한 시각이다. 이 부분에서 그 동안 우리의 언어문화교육 정책이 단편적이며 미시적인 성과에 매달려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의 다른 영역도 그러하지만 특히 모국어교육에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전망이 필요한데, 그에 관한 반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전망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싱가포르의 언어문화현상을 살펴보고 그 창을 통해 우리의 언어문화교육을 돌아본 결과, 몇 가지의 논쟁적인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

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모국어교육은 언어문화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과, 국가경쟁력은 정치·경제·기술뿐 아니라 학술·문화·예술 등의 방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중언어교육(영어공용화)은 장기적으로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언어이동(Language Change)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피진영어로써 'Konglish'를 만들어내는 대신 한국어의 언어문화는 위축될 것이라는 점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 본 논문은 2006. 2. 25. 투고되었으며, 2006. 3.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6. 3. 2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명수(2003), “아시아적 가치의 문화적 기원 - 싱가포르 중화 민족의 정체성 위기”, *전통과 현대*, 11호, 전통과현대사.
- 김성건(1995), “싱가폴의 종교와 문화”, *지역연구*, 4/4,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 김성건(1996), “싱가폴의 인종과 민족 문제”, *지역연구*, 5/4,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 김창원(2000), “국어 표현의 문화와 반문화”, 박갑수 외, *국어 표현·이해 교육*, 집문당.
- 민현식(2000), “공용어론과 언어 정책”, *이중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 복거일(1998),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문학과지성사.
- 이해준(2001), “문화 정책과 문화 교육”, *교육철학회 편, 문화 개방과 교육*, 문음사.
- 조동일(2001),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망상*, 나남출판.
- Bernard Spolsky(ed.) (1986), *Language and Education in Multilingual Settings*, Multilingual Matters Ltd.
- Chua Chee Lay(ed.) (2005), *Keeping My Mandarin Alive: Lee Kuan Yew's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KHL Printing Co. Pte. Ltd.
- Dennis Ager (2001), *Motivation in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policy*, Multilingual Matters Ltd.
- Evangelos A. Afendras & Eddie C. Y. Kuo(eds.) (1980), *Language and Society in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 Foley, J.A.(et. als.) (1998), *English in New Cultural contexts*, Oxford University Press.
- Gopinathan, S. (1999), *Preparing for the Next Rung: economic restructuring and education reform in Singapore*,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2/3.
- Gopinathan, S., Anne Pakir, Ho Wah Kam & Vanithamani Saravanan (1998), *Language, Society and Education in Singapore: Issues and Trends*, 2nd edit, Times Academic Press.
- Ho Wah Kam & Ruth Y. L. Wong(eds.) (2004), *Language Policies and Language Education*, Eastern Universities Press.
- Jasmine S. Chan (2000), *Singapore A vision for the New Millennium*, South East Asian Affairs, Institute of South East Asian Studies.
- Jason, Tan, S. Gopinathan Ho Wah Kam(eds.) (1997), *Education in Singapore*, Simon & Schuster Pte. Ltd.
- Jennifer Lindsay & Tan Ying Yin(eds.) (2003), *Language Trends in Asia*,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Joyce E. James(ed.) (1996), *The Language-Culture Connection*, SEAMEO Regional language Centre.
- Low Fe Ling & Adam Brown (2005), *English in Singapore - An Introduction*, McGraw-Hill Education (Asia).
- Morris, P. & Sweeting, A.(eds.) (1995), *Education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Garland Publish.
- Richard D. Lambert & Elana Shohamy(eds.) (2000), *Language Policy and Pedag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peak Mandarin Campaign Launching Speeches 1979-1989 (1990), Seng Printing Company.
- Vincent B. Y. Ooi(ed.) (2001), *Evolving Identities - the English language in Singapore and Malaysia*, Times Academic Press.
-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http://koreaembassy.org.sg>, 2005.
- 싱가포르 한인회, <http://www.koreansingapore.org>, 2005.
- 싱가포르 교육부, <http://www.moe.gov.sg>, 2005.
- 싱가포르 문화·정보·통신부, <http://www.mita.gov.sg>, 2005.
- Speak Mandarin, <http://www.mandarin.org.sg>, 2005.
- Good English Movement, <http://www.goodenglish.org.sg>, 2005.

<초록>

다중언어 사회의 언어문화현상을 통해 본

21세기 언어문화교육의 방향

- 싱가포르의 사례를 바탕으로 -

김창원

이 논문은 싱가포르의 언어문화현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언어문화교육의 방향을 탐색한 논문이다. 싱가포르는 영어·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를 공용어로 하는 다민족·다문화·다언어 사회로서, 정보화와 국제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우리 언어문화를 문화적 원근법으로 살펴볼 수 있는 비교 준거가 된다.

싱가포르의 언어문화는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출발한 역사적 맥락, 중국·말레이·인도계 주민이 섞여 사는 인종 구성, 말레이반도에 자리 잡은 섬나라로서의 지리적 배경, 그리고 유교적 실용주의에 기초해서 국제화를 추구하는 인민행동당의 정강·정책 등이 어울려 형성되었다.

싱가포르의 언어문화교육은 영어와 모어를 양측으로 하는 이중언어 정책에 따르는데, 그 결과 교육과 생활 양면에서 분열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분열은 인종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지역화와 세계화, 문화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싱가포르의 언어문화교육 정책은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언어문화의 발전 및 언어생태학적 다양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하여 언어교육에서 사고와 의사소통, 문화형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고, 국제어로서 영어교육을 강화하되 목표와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하며, 모어문화 및 모어교육의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언어를 통한 사회통합 문제와 영어공용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문제, 그리고 국가 주도의 언어문화교육이 지니는 한계를 논쟁점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핵심어】 싱가포르, 언어문화현상, 언어문화교육정책, 기본 공용어, 문화교육, 이중언어교육

<Abstract>

**On the Policy of Language & Culture Education
in 21th Century's Korea**

- Based on the Case Study of Singapore as a Multilingual Society -

Kim, Chang-won

Language education of 21th Century's Korea aims to be a culture education, instead of communicative education. In this point of view, I studied on the case of Singapore as a multilingual society to compare two nations and search any perspectives of policy of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Singapore use English, Chinese, Malay and Tamil. It has have multiple basement by historical, geographic, ethnic and political condition. Nowadays, most of Singaporean use Singlish and Mandarin as a lingua franca.

Ministry of Education of Singapore has some firm policies on the language education - bilingual education, unifying people through English, and culture education of mother tongue. It caused some disruption of language use in everyday living and school education. The disruption comes from discord between racial identity and national identity,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utilitarianism and culturalism.

Policy on the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of Singapore served for unifying people and powe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nation, but it setbacks language culture and variety of linguistic ecology, also. Therefore, we have to think about the balance among thinking, communication and culture. And it needs to understand the value of English education as lingua franca and mother tongue education as a cultural competence.

【Key words】 Singapore, Language & Culture, Policy of Language & Culture Education, lingua franca, Culture Education, Bilingual Education